

“이 벤치에 앉아 인체의 진화 느껴 보세요”



‘2016 광주비엔날레’ 참여작가 타이러 코번(왼쪽)씨와 김용철 소담공방 대표.

미리 보는 2016 광주비엔날레

<2> 참여작가 인터뷰-타일러 코번

“하루가 다르게 기술이 발전하는 시대에 인간이 어떻게 변할까? 제가 만든 벤치를 통해 관객들 스스로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최근 방문한 광주시 동구 계림동 소담공방(대표 김용철)에서는 후끈한 기운이 물러왔다. ‘2016 광주비엔날레’ 참여작가 타이러 코번(Tyler Coburn·33)은 이곳에서 전시작품으로 내놓은 벤치를 한창 제작하고 있다. 나무 소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먼지가 많이 날려 에어콘은 자주 켜지 않는다. 간신히 선풍기로 더위를 식히며 작업을 하고 있지만 시종일관 웃음을 잃지 않는 유쾌한 모습이었다.

미국 뉴욕에서 온 타이러는 “그동안 진화의 관점에서 사람 모습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연구하고 예술활동을 펼쳐왔다”며 “이번 비엔날레에서 공방과 협업해 현재 인간 골격에 맞는 가구를 선보이는 ‘타일러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말했다.

‘타일러 프로젝트’는 크게 3가지 주제로 진행할 예정이다. ▲인간이 진화하며 ▲어떻게 인체가 변하고 ▲어떻게 기능하고 불

가능한지 알아볼 생각이다. 가구제작과 함께 웹사이트도 구축 중이고 글도 쓸 계획이다. 타이러 작가는 광주에 머물며 벤치 ‘Ergonomic Futures’(인체공학의 미래) 1개를 완성했다. 그는 총 2개를 만들어 전시장 내에 설치할 예정이다.

완성된 작품을 보여주기 위해 공방 환경을 안내했다. 길이 2m·폭 60cm 기다란 갈색 나무 조형물이 놓여있었다. 한쪽은 높이 약 70cm 다른쪽은 50cm 정도다.

미래학자와 인류학자 등을 만나 미래 인간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이야기하고 예측해보며 완성한 의자였다.

타일러는 앉아보라고 권했다. 특이한 모양새에 어떻게 앉아야할지 몰라 머뭇거리자 낮은쪽에 머리를 두고 높은 쪽에 다리를 올려 누워보라고 일러줬다. 딱딱한 나무이지만 몸통을 감싸는 구조 덕에 생각보다 아늑했다. 키 180cm가 넘는 타이러 체형에 맞춰서 인지가 작은 사람들에겐 불편할 듯 싶었다.

이를 눈치챈 타이러는 굳이 놓지 않더라도 관객들이 각자 편한 방식으로 앉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귀띔했다.

계림동 소담공방과 협업

‘인체공학의 미래’ 작품 제작

가구 통해 인체·기술 고민

타일러는 비엔날레에 설치할 때 특별한 설명이나 안내없이 이름만 달아놓을 생각이었다. 관객들이 이리저리 알아보는 행동 자체가 전시 일부이다.

비엔날레 전시가 끝난 후에는 서울 서대문 자연사박물관에 기증할 계획이다. 원숭이에서 인간으로 진화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전시물 앞에 설치할 예정이다.

그는 기술적 진화를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우리가 사용하는 작은 스마트폰 안에 어떻게 방대한 데이터를 쌓을 수 있는지 보여주기 위해 스웨덴, 독일에 위치한 구글 데이터베이스센터에서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다.

애플 아이폰 목소리 인식프로그램 ‘시리’ 성우를 맡은 수잔 베넷(Susan Ben-

net)과 공동 작업을 하기도 했다. 수잔 베넷이 타이러가 쓴 에세이를 읽으며 점점 본인 목소리에서 프로그램 속 목소리를 변화하는 과정을 선보이는 퍼포먼스였다.

이번 비엔날레는 가구를 통해 진화, 인체, 기술발전을 전반적으로 살피는 계기다. 더운 날씨에 힘들 뻔 했지만 김용철 대표가 큰 힘이 됐다. 목각작업을 하는 김대표는 기술지원과 함께 이것저것 챙겨주는 든든한 동료였다.

지난 2014년 경기도 인천 송도프로젝트에 참여하며 한국과 인연을 맺은 타이러는 이번이 광주 첫 방문이다.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자연환경을 곱았다. 그는 “뉴욕과는 달리 광주는 버스를 타고 조금만 나가면 자연을 만날 수가 있다”며 “무등산이나 담양 소재원을 자주 찾는다”고 말했다.

“비엔날레 관객들이 제가 만든 벤치에 앉아 편하게 작품을 감상하면서 미래가 어떻게 다가올지 생각해볼까 봐요. 지금은 이 의자가 편할지 몰라도 앞으로는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르죠.”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명품 박물관 탄생!!
세계 70여개국에서 수집한 조각·장식 6,000여점 전시

세계 조각·장식 박물관
World Sculpture·Ornament Museum

☎(062)222-0072, 226-5800 일요일 휴관
(구. 카톨릭센터 뒤 금남문선 1층)

아프리카 쇼나조각
앙코르 전시회
*400여점 전시

예비 사회적 기업 ‘제2아트’ 청년작가 전시회

8월 31일까지

담양 담빛예술창고



▶고은별 작 ‘AND’

청년미술작가들이 오로지 예술활동으로만 살아가기에는 힘든 현실이다. 작은 작업실에서 묵묵히 그림을 그리며 빛을 보길 기다려보지만 녹록치않다.

조선대 학생들이 설립한 예비 사회적 기업 ‘제2아트’가 담양 담빛예술창고에서 8월31일까지 ‘제2-예술, 즐기는데 정답은 없다’를 주제로 전시회를 연다.

‘제2아트’는 작가를 꿈꿨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쳐 붓을 나버린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시회를 열어 다시 한번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버려지고 방치된 미술품과 재료가 두번째 생명을 얻는다는 의미다.

지난 3월 대학생을 대상으로 했던 첫 번째 전시회에 이어 이번은 담빛예술창고와 연계해 청년작가를 대상으로 한다. 참여작가는 고은별·김단비·김성결·나

지수·범경·서범현·양세미·위영주·이경훈·이선미·이태희·정다운·최나래 등 13명이다.

신세대 작가들의 특색 튀는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서울 고은별 작가는 선인장을 소재로 삼았다. 작품 ‘AND’는 밝은 회색빛 바탕에 질투는 선인장을 사실적으로 묘사했다.

이경훈 작가가 출품한 설치작품 ‘Message’는 TV 화면 밑으로 끊임없이 영수증 종이 롤이 출력되고 있다. 미디 어와 소비, 무관심 등 자본주의 사회 병폐를 묘사했다.

그밖에 햇빛은 사람 수심명을 통해 인간관계를 표현한 나지수 작가(‘연결관계’), 불갈을 흘리는 기법을 사용한 범경 작가(‘덧-씌우다’) 작품을 만날 수 있다. 문의 061-381-6444. 김용희기자 kimyh@

광주롯데갤러리 ‘러블리 레테’전 8월 5~31일

광주롯데갤러리가 8월5일부터 31일까지 프랑스 작가 나탈리 레테 특별전 ‘러블리 레테’전을 연다.

이번 전시는 월드타워 예비뉴얼아트홀, 부산 롯데갤러리, 청량리 롯데갤러리에 이어 열리는 순회전시이다.

다양한 신작 시리즈와 판화, 도자기, 섬유 아트, 콜라보레이션 아트상품, 원화 등이 전시될 예정이다.

중국어 아버지와 체코 출신 독일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나탈리 레테는 드로잉, 페인팅, 도자기, 섬유예술, 불제인형, 복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이다.

작품 속에 반복적으로 장난감, 새, 꽃, 에펠탑, 전례동화 등을 주로 소재로 사용하며 국내외에서 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다. 작가는 빈티지 장난감이나 골동품을 수집하며, 작품 영감을 얻는다. 독특하면서도 풍부한 색과 즐거운 분위기, 시적인 느낌을 담아 관객들을 동심으로 유도한다.

곤충채집을 형상화한 ‘ma collection’은 노란 배경에 나비, 잠자리, 메뚜



‘hansel et gretel’

기 등을 그려넣었다. 중간중간 꽃과 식물 등 장식적 감성을 더했다.

동화 빨간머리 주인공을 그린 ‘ainsi’, 곰인형을 묘사한 ‘Ami L’ours l Lapin Rose’, 헨젤과 그레텔(‘hansel et gretel’) 등을 만날 수 있다. 문의 062-222-1807. 김용희기자 kimyh@

제2회 화순~광주 동구 너릿재 옛길 흑서기 마라톤대회

2016년 8월 15일(월) 오전 8시 출발

접수 및 문의 ☎(061)375-1288 http://marathonworld.kr/

장 소 | 너릿재 옛길(화순~광주 동구 구간 4.2195km)
출 발 | 너릿재 옛길 주차장(화순 소아르 갤러리 앞)
코 스 | 화순 소아르 갤러리~너릿재~너릿재 옛길 주차장(광주 동구)
종 목 | 풀(5회왕복), 25km(3회왕복), 8.5km(1회왕복)
참 가 비 | 25,000원
접수인원 | 선착순 1,000명(입금기준)

주최 | 광주일보사·마라톤세상
주관 | 화순군육상협회·마라톤세상
후원 | 화순군,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지방보훈청